

三國時代의 佛敎建築

鄭永鎬

一、緒論

寺域에는 塔婆와 金堂을 중심하여 각종 法堂과 寮舍等 많은 附屬建物이 適材適所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듯 많은 建築物중에서 金堂과 여러 法堂은 殿堂으로서의 하나의 樣式과 系統이 定立되었고 寮舍等 여러 附屬建物 또한 그 나름대로의 形式이 定立된 것이므로 이들 木造建築物을 일괄하여 「寺院建築」 혹은 「佛寺建築」의 論放로 大論題인 「三國時代의 木造建築」에서 言及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塔婆에 있어서서는 塔婆建造의 목적이 佛敎의 教主인 釋迦牟尼의 眞身舍利를 奉安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던 佛家の 禮拜對象으로서의 建築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塔婆를 진립함에 있어 그 平面構成이 方形 혹은 六角 八角 등으로 多樣하고 특히 建造材料에 따라 木造塔婆 石造塔婆 磚造塔婆 模磚石塔 靑銅塔 金銅塔 등으로 分類 考察할 수 있으니 塔婆 또한 다른 建築物 못지 않게 多樣性 있는 形態와 樣式 技法으로 建築史上 一大主流을 이루고 있음을 알겠다. 그러므로 寺刹에서의 法堂이나 寮舍等 諸建物は 「木造建築」의 章에서 論하겠거니와 이들 塔婆도 「佛敎建築」이라는 별도의 論放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佛敎建築이라 함은 佛敎로 因한 建築物을 가리키므로 寺院建築 全殿에 걸친 建物を 망라한다 하겠으나 法堂과 寮舍 및 附屬된 諸木造建物

은 별도로 고찰하므로 이들은 모두 제외하고 이 밖의 모든 佛敎的인 建築物을 살펴보는바 여기에서의 主된 內容은 역시 塔婆가 아닌가 한다. 즉 佛敎建築이라 할 때 塔婆 이외에 石造浮屠 石燈 幢竿 및 支柱 石碑 露柱 등 여러가지 建造物을 들 수 있겠으나 三國期에 造成된 것으로 현 재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고 石燈材와 石槽 몇점이 전할뿐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論題와 같이 三國時代의 佛敎建築을 論하되 塔婆를 主된 論放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三國期의 塔婆를 論한다 하더라도 現存 遺構를 중심해야 할 것인바 石造塔婆는 현재 몇 基가 전해지고 있으나 木造塔婆는 現存 遺例가 없으며 다만 그 遺址의 發掘調査에서 礎石을 비롯한 地上塔址와 地下遺構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現存 石塔에 대해서는 細部手法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으나 木塔의 경우에는 기왕에 發掘調査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현재 진행중인 發掘現場等에 대해서도 주의깊히 관찰하여 종합적인 眼目으로써 論하려고 한다.

塔婆는 佛舍利를 奉安하기 위한 建造物이므로 그 淵源은 印度인 것이다. 한국의 佛敎受容이 四世紀 후반 이어서 塔婆의 진립도 이후부터는 있었을 것이나 한국 塔婆의 起源이라 할 수 있는 뚜렷한 遺構는 아직까지 조사된바 없다. 그러나 한국의 佛敎가 중국을 통하여 傳受된 사실과 중국에서의 建塔起源을 二(三世紀頃)이라 할 때 ① 한국의 塔婆도 그 淵源을 밀리는 印度에 든다고 하겠으나 가까이는 중국으로 보아 중국의 塔婆가 보다 직접적인 모범이 되어 한국 塔婆의 初期樣式이 중국 塔婆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順理일 것 같다.

그리하여 한국의 塔婆는 본래 중국 塔婆의 規範아래 樓閣形式의 多層塔이 祖宗을 이루었던 것이며 곧 한국 塔婆의 始源形式은 樓閣式 重層이었음이 틀림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二、高句麗의 木塔

한국 佛敎受容의 最初와 당시의 상황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高句麗 小獸林王二年(三七二 A.D.)에 前秦王 符堅이 使者와 僧 順道를 시켜 佛像과 經文을 보냄으로써 처음으로 한국에 佛敎가 들어왔고 王四年甲戌에 僧 阿道가 晋에서 왔으며 다음해인 乙亥二月에는 肖門寺를 창건하여 順道를 두고 또 伊弗蘭寺를 창건하여 阿道를 住錫케 하였던 것이다^②.

여기서 高句麗는 佛敎가 전해진과 동시에 最初의 佛刹로 肖門寺와 伊弗蘭寺를 창건하였던 것인데 이 兩寺刹에 塔婆를 建造했다는 기록은 없고 실제 兩寺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塔婆가 佛家の 禮拜物인 만큼 적어도 이후부터는 塔婆의 建立이 必히 있었을 것이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만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며 오직 遼東城育王塔의 전설과 平壤城西 大寶山下의 高麗靈塔寺 전설이 建塔기록으로 전할 뿐이다^③.

즉 기록에 의하면 지금 滿洲遼陽地方으로 추측되는 곳에 高句麗의 遼東城이 있었으며 이 길에 塔婆가 있어 이 塔이 三重土塔이었던 것을 聖王의 信心發願으로 七層木塔을 建立하였는데 그 후 다시 그 높이를 주리다가 木塔이 썩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高麗靈塔寺의 전설은 이 寺刹의 創建說話인데 僧 普德이 恒上 平壤城에 居하였는바 山方老僧의 請으로 涅槃經 四十餘卷을 講하고 罷한후 城西 大寶山窟穴下의 禪寺에 이르니 神人이 와서 請하여 이곳에 居住하라 하고 錫杖을 앞에 놓고 그 땅을 가리켜 가로되 이 속에 八面七級의 石塔이 있다 하므로 받달하니 과연 그러하였으며 이로 因하여 精舍를 세워 靈塔寺라 하고 이곳에 居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가지 기록은 황한한 說話形式으로 전해오는 것이어서 그 사실 여부를 무어라 말할 수 없겠으나 「遼東城育王塔」에서의 「傍有土塔三重」 「云是佛塔」 「起木塔七重」이란 記事와 「高麗靈塔寺」에서의 「此下有八面七級石塔」이라 한 記事는 특히 主要하여 高句麗 塔婆 研究의 관계 기록으로 注目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廣開土王二年(三九三 A.D.), 平壤에 九寺를 創

建하였다^④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면 平壤에 창건한 九寺들에는 자기堂·塔을 건립하여 寺刹의 면모를 갖추었을 것인바 塔婆와 金堂 등 伽藍配置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밖에 후대의 기록에 있어서도 塔婆建立의 관계記事는 보이지 않으므로 高句麗의 建塔事實을 밝히기가 현재로는 뛰어난 문재일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說話形式의 記事라 하더라도 三國遺事에 보이는 遼東城育王塔條와 高麗靈塔寺條의 建塔 관계 記事를 唯一한 記錄이라 하겠는데 여기서 「起木塔七重」이라 한 것은 七層木塔이겠고 「八面七級石塔」이라 한 것은 八角七層石塔일 것이며 「云是佛塔」은 역시 佛舍利塔으로서 塔婆를 일컫을 것이다. 그리고 「土塔三重」이라 한 것은 三層土塔을 말함인데 당시의 土塔이 어떠한 形態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관련기록을 보면 「上如覆釜」 즉 위는 솥을 덮은 것 같았다고 하였으니 곧 覆鉢形을 표현한 것 같은데 土塔이라고 한 것을 보면 土築方壇위에 覆鉢을 설치하여 마치 印度에서의 塔婆의 淵源의 形式인 土壇築 覆盆形式과도 같은 형태를 취했던 土塔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리하여 위의 몇가지 내용을 집약 정리해 볼 때 高句麗의 塔婆는 木塔 石塔 土塔이 건립되었었고 層數에서는 三層과 七層이 있었으며 형태는 八角의 平面을 구성한 것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文獻에는 없으나 日帝侵略期에 發掘調査되어 高句麗의 寺院址임은 물론 塔址가 밝혀져 高句麗 塔婆의 存在를 실증한 遺例가 있으니 平壤市 東쪽의 淸岩里寺址에서 八角殿의 八角基壇과 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上五里寺址에서 八角堂의 基壇部가 조사되어 木塔址임을 알 수 있었다.

平壤 淸岩里寺址에 대한 發掘調査는 一九三八年에 실시하였으며 그 調查報告書가 발행되었는바^⑤ 이 調查報告에 의하여 寺址概況과 특히 八角木塔址에 대하여 알 수 있으니 木塔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이 寺址는 平壤 牡丹臺의 東北方 약 3km 되는 淸岩리에 위치 하였는



圖 2. 平壤清岩里廢寺址 八角殿址 細部(1)



圖 3. 平壤清岩里廢寺址 八角殿址 細部(2)



圖 1. 平壤清岩里廢寺址 八角殿址(正面에서 西半部를 바라봄)

대 寺刹은 넓은 臺地위에 西南向 하였으며 南쪽에 門塔가 있다. 木塔址로 추정된 八角殿址는 이 臺地의 中央部에 隆起된 地山岩盤을 이용하여 基壇部의 基礎로 삼고 있다. 즉 그 岩盤을 八角形으로 削平하고 그 주위에 폭 약 七〇 cm 되는 자갈돌 깔이를 둔 것이다. (圖 1~3 참조)

이 八角殿의 基壇部 一邊의 길이는 평균 약 九·五 m이며 그 南壁에서 門址까지의 거리는 十 m 가 된다. 또 이 八角堂의 東西에는 역시 자갈돌을 깔은 길이 十 m 정도의 通路로써 연결되는 堂址가 하나씩 있는데 이것은 모두 矩形이고 正面 폭 약 三 m 되는 建物이다. 八角殿 북쪽에도 矩形殿址가 있는데 폭 二 m 長邊 약 一 m 되는 큰 建物이고 다시 그 북쪽에 講堂址라고 생각되는 殿址의 흔적이 있다.

이러한 建物配置를 볼 때 中心部에 있는 八角殿址는 본래 塔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이렇듯 塔을 중심하여 東西北三面에 殿址가 있는 配置는 곧 一塔中心 東西北三金堂式(一塔三金堂) 伽藍配置로 한국 初期의 伽藍配置였음을 알 수 있겠다.

大同 上五里寺址의 發掘調査는 一九三九年에 실시하였는바 清岩里寺址發掘報告와 같은 調査報告書가 作成되지 않아 유감스러운 일이나 부분적인 간략한 소개가 있으므로 개략적인 상황은 짐작된다. 즉 一九三九年 上五里寺址 發掘調査時 現地調査에 참가했던 齋藤忠氏의 증언에 의하면 清岩里寺址에서의 八角殿址와 똑같은 八角殿址와 그 左右에 兩殿址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⑥.

現場圖版을 살펴보고 略報를 참고하면 八角의 基壇址 주위에 정연한 자갈돌 깔이를 돌렸는바 이것은 곧 清岩里寺址의 八角殿址에서와 同一한 遺構이다. 또한 上五里寺址에서의 八角殿을 중심한 東西北三面 殿堂 배치도 清岩里寺址와 똑같은 것으로 一塔中心 東西北三金堂形式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곳 上五里의 寺址는 清岩里遺蹟과 함께 한국의 初期의인 伽藍配置였음을 알겠다.

이와같이 兩寺址에서의 八角殿址를 살펴보아 이것을 곧 木塔址로 추

정하고 있으나 이들 遺構에서 中央部の 深處나 他處에서도 礎石 등은 전혀 찾지 못하고 또한 中心部도 심하게 파손되어 心礎의 有無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八角殿이 단순한 單層이었던지 혹은 重層形式의八角圓堂이었던지 또는 層層重疊하여 中空에 높이 솟아있던 層樓形式의八角圓形의 木塔이었던지는 現存 遺蹟으로만은 확증할 수가 없다. 다만 木造建物の 基壇이라는 점에서八角이기 때문에八角殿자가 분명하여 木塔址로 추정한다는 것과 基壇이八角이므로八角殿堂도八角의 平面으로 곧 平面八角의 木塔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平面八角塔에 대해서는 앞에서 文獻上으로 살펴본 高麗靈塔寺의 創建 說話중 「八面七級石塔」이라한 것이 곧八角七層石塔을 말한 것으로 이해되어 이미 그 概念이 點頭되고 있는 바다. 그러므로 傳說的인 기록이던 實存 遺構던 高句麗의 塔婆에서八角形의 平面을 이룬 塔婆는 그나름 대로 하나의 樣式으로 등장되고 있음을 알겠다. 그리하여 이후 後代王朝에 이르러 특히 高麗時代에는 佛敎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石塔도 전국적으로 分布되고 그 建塔에 있어서 土着세력의 참여로 地方的인 特色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新羅故土에서는 新羅石塔의 樣式을 충실하게 계승하였고 百濟故土에서는 百濟石塔의 樣式을 따르고 있는 예가 많으며 특히 平安道地方에서는 平壤永明寺八角五層石塔 大同廣法寺八角五層石塔 大同栗里寺址八角五層石塔 妙香山普賢寺八角十三層石塔 등과 같이 平面이八角으로 구성된 遺例가 많은데 이것은 平安道일대가 高句麗의 故土임으로八角塔의 淵源인 前代의 高句麗 塔婆系 樣式을 따라 平面을八角으로 구현함으로써 地方的 特色을 잘 나타내고 있는 당시의 추세를 잘 보이고 있는 바라 하겠다⑦).

三國史記와 遺事 東國輿地勝覽 등 옛 기록에 의하면 廣開土王 二年에 창건한 平壤의 九寺 이외에 文咨王七年(四九八 A.D) 七月 平壤에 세운 金剛寺를 비롯하여 盤龍寺(或稱 延福寺) 金洞寺 珍丘寺 大乘寺 大原寺 維摩寺 中臺寺 開原寺 燕口寺 등 많은 寺刹이 창건 되었었는데 이들 各寺院에서의 建塔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더우기

諸寺院의 정확한 위치조차 알 수 없는 現實인바 앞으로 보다 깊은 研究로 各寺의 창건 위치와 事蹟은 물론 特別히 建塔에 관한 文獻를 披覽으로써 전혀 未盡한 高句麗塔婆研究에 귀중한 資料가 加해될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三、百濟의 木塔과 石塔

百濟에서의 佛敎 受容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드시 枕流王 元年(三八四 A.D) 이었다. 즉 王元年 九月에 胡僧 摩羅難陀가 중국 南朝의 東晉으로부터 來朝함에 王은 이를 맞아 宮中에서 禮儀로써 公경하였으니 佛法이 이로부터 始行되었던 것이다. 다음해인 王二年乙酉에는 漢山에 佛寺를 창건하여 僧侶 十人을 度하였으니⑧ 佛敎의 傳來와 受容이 高句麗에서와 같이 순조로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 「創佛寺於 漢山 度僧十人」이라고만 하였으므로 당시 창건하였다는 寺刹名이 무엇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建塔의 사실이 있었는지 등 일체를 알 수 없다.

이후 熊津(公州)으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 즉 蓋鹵王二十一年(四七五 A.D)에 이르기까지에는 漢山에 寺刹을 창건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熊津遷都후 公州에서의 寺院은 遺事와 東國輿地勝覽 등의 기록에 약간 보이어 聖王代에 興輪寺와 大通寺(王五年, 五二七 A.D)를 창건하였으며 다시 사비성(扶餘)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도 威德王 때 이르러 公州 月城山에 水源寺를 창건 하였고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公州 望月山에도 西穴寺를 창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寺刹에서 伽藍의 配置나 특히 建塔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이나 遺蹟地의 상황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聖王十六年(五三八 A.D) 泗泚遷都후에는 상당한 數의 寺刹이 창건 되었음을 三國史記나 遺事 東國輿地勝覽 등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때의 寺院들은 대략 師子寺 彌勒寺 五金寺 普光寺 王興寺 虎窟寺

烏舍寺 漆岸寺 天王寺 道讓寺 白石寺 北部修得寺 등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오늘날 伽藍의 遺址와 특히 塔姿의 遺構를 보이고 있는 것은 彌勒寺 뿐이며 天王寺와 道讓寺에서는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六 義慈王 二十年條에 「震天王 道讓 二寺塔」이라고만 있어 塔姿가 存在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塔의 형태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밖에 다른 寺刹에 있어서도 대개 그 위치와 所創年代는 짐작되나 伽藍의 규모나 塔姿建造관제 등의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古代의 기록에는 없으나 現地에서 傳稱되어 오는 寺刹 혹은 遺物이 出土되거나 遺構가 있는 遺蹟地로서 百濟寺址로 추측되어 오는 寺院 등이 상당수 있으니 阜蘭寺 靑龍寺 廢址 定林寺 廢址 佳塔里 廢寺 帝釋寺 址 軍守里 廢寺 址 東南里 廢寺 址 窺石外里 廢寺 址 老隱寺 廢址 驚龍寺 廢址 正覺寺 道泉寺 廢址 無量寺 金剛寺 廢址 臨江寺 廢址 등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伽藍의 규모와 특히 塔姿의 遺構가 뚜렷한 것은 定林寺 址와 軍守里 廢寺 址 金剛寺 址 帝釋寺 址 뿐이다. 佳塔里 廢寺 址와 東南里 廢寺 址는 一九三八年度에 發掘調査한 바 있고 臨江寺 址는 一九六四年度에 發掘調査하였으나 塔址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本論에서는 論外로 하겠거니와 軍守里 廢寺 址와 金剛寺 址의 發掘調査에서는 木造塔姿의 基壇部가 확인되어 百濟時代 木塔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주목되고 있으며 帝釋寺 址는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本論에서는 유보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定林寺 址에는 五層石塔이 遺存하므로 百濟時代 石塔의 귀중한 예이거나 기록에 보이는 彌勒寺 址에도 巨大한 石塔이 原位置에 건립되어 있어 定林寺 址 五層石塔과 더불어 百濟時代 石塔은 물론 한국 石塔 發生期의 唯一한 例들로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百濟의 塔姿를 論할 때 우선 木塔을 살피고 다음으로 石塔을 거론함에 있어 木塔으로는 軍守里 廢寺 址의 木塔址와 金剛寺 木塔址를 고찰하고 石塔에서는 彌勒寺 址 石塔과 定林寺 址 五層石塔을 순서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軍守里 廢寺 址는 一九三五年 가을에 착수, 다음해인 一九三六年度 가

을까지 發掘調査되어 그 內容이 報告된 바 있다^⑨. 이 廢寺 址는 扶餘邑의 南쪽 場岩里로 통하는 길목 약 二km 되는 낮은 丘陵地인데로 白馬江을 면하고 있어 이른바 江을 면하고 있는 平地 寺院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發掘결과 南쪽에서부터 中門址 塔址 金堂址 講堂址가 확인 되었고 또 金堂左右에 각각 建物址 하나씩, 그리고 講堂址 左右에 鐘樓와 經樓址로 생각되는 建物址가 각각 하나씩 확인 조사 되었다. 즉 바꾸어 말하면 中央金堂址를 중심으로 南쪽 앞으로 木塔의 基壇址가 있고 그 南쪽에는 中門址가 있으며 金堂址 北쪽에는 講堂址가 발굴 조사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講堂址 左右에는 梵鐘과 經藏의 樓址가 있으며 金堂址 左右에는 각각 金堂이 배치되어 이른바 金堂 三棟이 東西로 並立한 三金堂式 伽藍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듯 一塔三金堂式의 伽藍配置는 곧 高句麗의 平壤淸岩里寺址의 伽藍配置와도 통하는 점으로 이들은 共히 堂塔 兼備의 寺院址로서 한국에 있어서의 佛寺經營이 당초부터 堂塔並存의 形式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中央金堂址는 東西二七m 南北一八m의 長方形이고 金堂에서 北쪽으로 一八m 떨어진 講堂址는 東西四五m 南北一八m의 長方形이며 講堂東西壁에서 각각 四·八m 떨어진 곳에 東西一·二·三m 南北一·五m의 鐘樓와 經樓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中央金堂의 東西壁에서 二·五·五m 떨어진 위치에 南北一·五m 東西 약 一·三·二m 크기의 東西金堂이 배치되어 있다.

木塔址는 中央金堂의 南쪽 九m에 위치하였는데 一邊 약 一·三·八m의 正方形으로 塼을 돌렸고 그 壇上안쪽 周緣가까이에서는 七個의 炭化된 方形기둥자리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方形基壇 中心部 發掘에서는 地表面下 약 一·二m에서 金銅菩薩像과 土器 鐵器 등이 발견되었고 地表面下 一·五m 등서는 蠟石製如來坐像과 金環 小玉 등이 出土되었으며 地表面下 一·八m 깊이에서 一邊長 一m쯤 되는 方形柱座의 큰 心礎石이 발견 조사되어 역시 이 正方形의 基壇이 木造塔姿의 基壇이 분명함을 입증하게 되었다. (圖 4·5 참조)

金剛寺址는 一九六四年과 六六年 春季의 二次에 걸쳐 國立中央博物館에
서 發掘을 進행하여 그 調査報告書를 刊行한바있다¹⁰。 이 報告에 의하
면 百濟時代의 大개의 寺院이 南向인데 이곳 金剛寺는 당초부터 東向寺
刹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木塔址도 金堂址에서 東쪽으로 약 一六 m
되는 곳에 위치하였다。

木塔址는 현재 완전히 경작지로 변해버리고 地上에는 아무런 표적도
없다。 다만 地形이 약간 두드러지고 낮은 土壇狀을 이루었을 뿐이다。
발굴결과 地下에는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창건 당시의 版築基壇土가 남
아 있으며 基壇이 二次에 걸쳐 改造된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에 나타난
遺構는 마지막번에 해당되는 三次基壇의 잔재인데 이것은 基石들을 사
용하여 임성하게 쌓았으며 一邊長 一二 m 높이 三〇 cm 餘이다。(圖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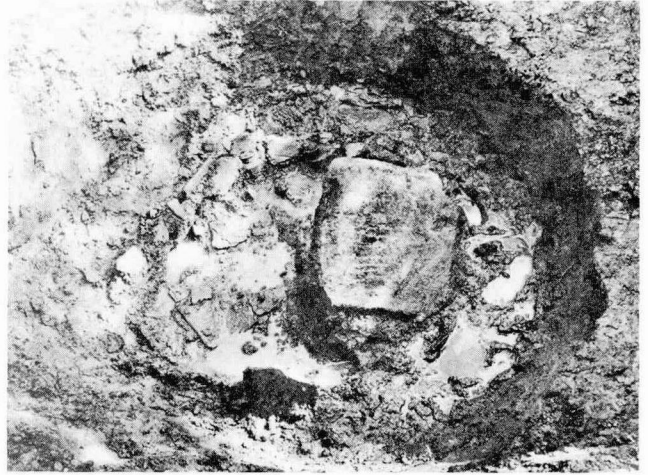


圖 4. 扶餘軍守里廢寺址 木塔址 中央部 發掘狀況
(地皮下 約 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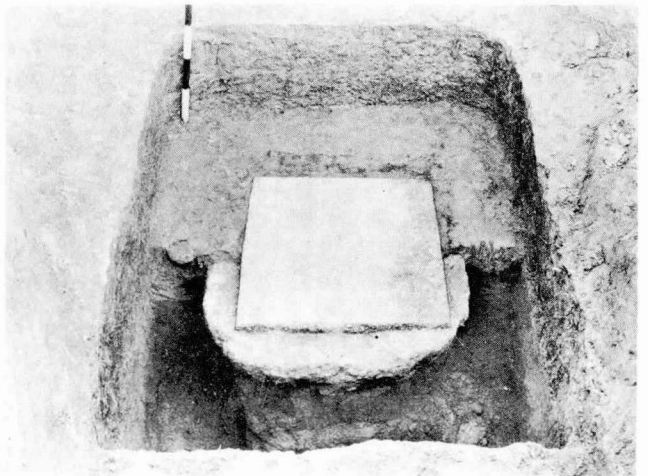


圖 5. 扶餘軍守里廢寺址 木塔址中心礎石(地皮下 1.8m)

참조)

木塔 中心 擦柱를 세우는 心礎는 깊은 地下에서 발견 되었는데 단단한
自然의 風化岩層을 깎아내고 圓形礎石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는 구멍을 뚫었다。 心礎 전체의 크기는 底部 직경이 약 二 m、
구멍 직경은 약 一·二 m、 깊이 六六 cm 이다。 이 心礎部에서 현재 版築
土의 두께는 一·八 m 에 달하는데 舍利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는 별로
마련된 것이 없었다。 다만 心礎구멍 바닥에서 나무가지를 엮어서 만든
箱子모양의 容器하나가 거의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腐蝕되어 발
견되었는데 무엇을 담았는지 아무 흔적도 없으며 出土상황으로 보아 창
건 당시의 것은 물론 아니었다。 아무튼 이곳의 木塔址는 一邊長 一五 m
의 正方形으로 밝혀졌는바 基礎部가 진흙을 층층히 다져서 두드린 것이



圖 6. 扶餘金剛寺 木塔址

며 이것이 石礎 이상의 堅固性을 보여주고 있음이 주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石造塔婆에 있어서는 앞서 말하바와 같이 彌勒寺址石塔과 定株寺址石塔이 남아있어 塔婆의 造形을 잘 고찰할 수 있다.

우선 彌勒寺址石塔부터 살펴 볼 때 우리나라 最古最大의 石塔이라 하면 곧 이 彌勒寺址石塔을 들 수 있겠다. 현재 箕陽里의 추창 路上里부락 西南方 原位置에 건립되어 있는데 全面이 거의 도피되어 東北面 한 귀퉁이의 六層까지 남아 있으나 본래는 平面 方形塔으로서 최소한 七層의 塔身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측 된다.

우리나라에서 古代伽藍址로 가장 정확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규모도 廣大한 면적을 보유한 절터가 바로 이곳의 百濟時代 彌勒寺址라 하겠다. 彌勒寺址는 彌勒山(三國遺事에는 龍華山이라 하였으나 龍華山은 彌勒山東측에 따로 있다고 한다) 獅子岩峯을 배경으로 거의 南向(子午선에서 二五度 西向한)해서 山 기슭에 위치하였는데 현재 路上里부락을 출입하는 小路를 대략 중심선을 삼고 東·西에 같은 거리로 幢竿支柱가 각각 一座씩 서 있으며 다음에 石塔과 金堂址로 추측되는 礎礎 柱礎列들이 西편에 있으나 東측에는 이와 대칭적인 遺構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이곳에 대하여는 많은 國內外학자들이 注目하여 때때로 현지 답사에서 蓮華紋瓦當 수집 하였고 특히 八·一五 光復후 이곳 조사에서 발견된 古代의 石造遺物 및 瓦磚類는 수차에 걸쳐 국립부여박물관에 옮겨졌으니 이 가운데서도 三基의 石燈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火舍石을 비롯하여 그 屋蓋石과 蓮華紋臺石은 百濟末 彌勒寺 창건과 같은 때의 조성물로 추정되는 중요한 유물인 것이다.

이렇듯 이곳의 地表調査는 그동안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나 이 일대의 매몰된 地下遺構의 발굴조사는 전혀 행하여진바가 없다. 그런데 一九六六年 四~五月에 걸쳐 石塔 중심점 椽柱에서 北쪽 약 九五m 되는 지점의 東·西 약 九三m 길이, 폭 二m 되는 구역을 좌·우 양면으로 발굴을 전개 하였었다. 이 발굴 조사는 당국에서 試圖한 것이었는데 당시의 발굴지역은 彌勒寺址 全域에 比하면 극히 작은 한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여기서 礎石列, 長大石등이 나왔고 많은 참고자료가出土되어 앞으로의 좀 더 광범위한 학술적인 발굴조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에 이르러 당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百濟文化圈개발의 일환으로 이곳 彌勒寺址 발굴조사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 발굴조사는 우선 五年계획으로 一九八〇年度부터 착수하였는데 東쪽 寺域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全域에 걸쳐질 것인바 東塔址 北쪽에서 法堂址와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遺構와 많은 遺物이出土되어 彌勒寺研究는 물론 百濟寺院 研究에 새로운 자료를 다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같이 많은 사람의 來往속에서 이곳의 石塔은 오랜동안 注目되어 왔는데 今世紀 초엽에 이 塔을 보았을 때 西쪽面이 붕괴가 가장 심하고 東面의 北쪽과 北面의 東쪽 일부만이 原形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전체가 무너지기 직전이어서 당시 시급한 보존책으로 시멘트를 파괴 부분에 보강하여 「계단 피라미」形으로 石塔을 고정시켜서 우선은 石塔 전체의 파괴를 방지하였던 것이다. (圖 7 참조)

이러한 시멘트 보강의 문제는 石造物 보존에 큰 실수를 저질른 것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붕괴된 부분의 정밀한 조사가 先行 되어야 할 일인데 이러한 검토가 없이 시멘트만을 다져 놓았기 때문에 이 石塔의 復原을 연구 검토할 많은 자료를 전혀 수습하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러 자료의 결핍을 절감케 한것은 그네들의 씻을 수 없는 과오라 하겠다.

또 일체침약기 그들은 石塔과 대응되는 東쪽에 같은 규모의 金堂이 있어서 중심선에서의 상호 거리나 그 규모가 이 石塔을 중심한 伽藍과 같다고 하였으며 특히 東塔은 木造塔婆로서 石塔이었던 흔적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⑪

그러나 光復후 國內 학자들의 조사연구에 의하여 근래에 이르러서는 日本人 학자가 木塔이라고 하였던 것은 큰 잘못이었음이 밝혀져 이 石塔 東쪽에 이와 같은 규모의 石塔이 또 하나 있어서 이른바 東·西雙塔의 배치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圖 7. 彌勒寺址 石塔(東南 쪽에서)



圖 8. 彌勒寺址 石塔(東北 쪽에서)

더우기 一九七四年度 八·九月에 걸쳐 全北 裡里市의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가 실시한 이곳 東塔址의 발굴조사에서 본래부터 木塔이 아니라 石塔을 건조하였음이 분명함을 밝혔던 것인데 이 조사에서 遺構뿐만이 아니라 出土된 遺物로서도 石塔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수습되었다¹²⁾.

그러므로 彌勒寺址石塔에서는 東·西 雙塔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인바 東塔은 그 遺址뿐으로 地上의 建造遺構는 없고 西塔에서만 石塔의 構造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우선 西塔에서 各部의 樣式手法를 고찰하고 다음으로 東塔의 發掘遺構에서 地臺石들의 形式과 基壇部의 諸構造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西塔을 살펴 볼 때 이 石塔을 韓國 最古의 石塔으로 보고 그 始源을 여기에 두고 있는 이유는 이 塔을 하나의 石造建物로 보는 동시에 그 樣式이 木塔과 흡사함을 누구나 곧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石塔은 이에 앞서 先行 하였던 木塔의 各部材에서의 諸樣式을 木材대신 石材로써 충실하게 구현 하였기에 石塔 發生系列에 있어서 마땅히 그 先頭에 두게 되는 것이다. (圖 8 참조)

各部의 構造를 살펴보면 基壇部는 木塔에 있어서와 같이 낮고도 규모가 작은 편이다.

塔身部에 있어서 初層屋身은 各面이 三間씩인데 중앙 一間에는 四方에 門戶를 마련하여 內部로 통하게 하였으며 그 內部 中央의 교차되는 중심에는 거대한 方形石柱가 있어 이것이 곧 이 石塔의 椽柱인바 이러한 方柱가 지탱하고 있는 것도 木塔에 있어서의 形式과 같다고 보겠다. 各面에는 「엔타시스」를 표현한 方形石柱를 세우고 그 위에 平枋과 昌枋을 가설 하였으며 다시 棋樣式을 모방한 三段의 받침이 있어 屋蓋石을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木造建物 架構의 그것을 본받고 있는 것이다. 二層 이상의 屋身은 初層보다는 훨씬 얇아졌으나 各層 높이의 차이는 심하지 않으며 各部의 架構手法는 略化됨을 알 수 있다.

屋蓋石은 얇고 넓은데 네 귀퉁이의 轉角에 이르러 약간의 返轉을 보이



圖 9. 彌勒寺 東塔址



圖 10. 扶餘定林寺址 五層石塔

東塔은 西塔과 똑같은 形 式의 石塔이었는데 現地發掘調査에 서 西塔에서는 알 수 없었 던 基壇遺構를 東塔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발공 에 의하여 노출된 遺構는 礎石과 基壇 그리고 基壇 四面에 설치된 石造階段이 다. (圖 9 참조). 礎石역 시 二重으로 되어 있는데 上段礎石은 地表面에 몇개 없지만 下段礎石은 거의 남

며 二層 이상의 屋蓋石은 위로 올라 갈수록 폭이 줄어 들었을뿐 斗栱 樣式의 三段 屋蓋반침이나 轉角의 返轉 등 各部는 初層과 같은 手法을 보이고 있음은 屋身의 경우와 같다.

이 石塔의 原形에 대해서는 日帝侵略期 그네들이 九層塔으로 復原圖를 제시한바 있고 相輪部도 本塔의 相輪으로 추측 고찰하기도 하였으나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이러한 규모로 보아 적어도 七層은 되었으리라 추측되며 여기에 相輪部까지의 높이를 추산한다면 實로 二十餘m에 달하는 거대한 石塔이었으리라 생각 되는 것이다^⑮. 이 石塔의 건립연대에 관해서는 과거 일본인 학자들이 구구한 억측으로서 통일신라시대의 건조물로 比定한바 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百濟의 公州郡邑期인 東城王代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나 이 문제는 이곳 彌勒寺의 창건과 아울러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연대의 추정은 石塔자체가 지니고 있는 양식과 수법상의 고찰은 물론이요 한편

고대의 기록에서도 그 뒷받침을 얻음으로서 더욱 확고해질 수 있는 것이니 곧 三國遺事의 卷二 武王條에 보이는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점을 종합해 볼 때 이 石塔은 역시 百濟末期인 武王代(六〇〇~六四一 A·D)의 건립으로 추정함이 옳을 것 같다.

앞으로 이 石塔의 보존문제에 대하여는 이 방면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현상태에서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는 것은 日帝侵略期에 東北面 한곳만을 제외 한 나머지 전면에서 시멘트를 고착 시켜 놓은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상층부에서 도괴된 부재를 철저히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수습하고 특히 六層이상으로 올라가는 부재에 대한 분류와 이를 기초로한 복원 고찰로 原形을 파악 할 것이며 더욱 相輪部材를 색출하여 相輪部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 石塔에 소요된 石材는 실로 數千個에 달할 것인바 이러한 모든 학술적인 기초조사가 전혀없이 시멘트의 보강만을 서둘렀던 그

네들의 처사가 무지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다.

아있어 柱間의 크기를 과악할 수 있다. 基壇에 설치된 石階도 東面과 南面に 있던 遺構가 構造形式을 알 수 있을만큼 良好하고 특히 下層基壇의 鋪石은 거의 原狀대로 配列되어 있어 多행이었다. 上層基壇의 구조는 地臺石위에 面石을 세우고 그 위에 甲石을 놓게 되었다. 地臺石은 地盤에 固定시키고 上面에 溝溝를 만들어 面石을 세우고 四隅에는 각각 隅柱를 세워 그 위에 甲石을 놓는 形式인데 基壇에 사용된 石材는 모두 花崗岩으로 규격은 일정치 않다. 아무튼 基壇部가 조사된 것은 多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도 계속 이곳의 發掘調査가 진행될 것이므로 塔址는 물론 전체에 대하여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石塔은 扶餘定林寺址 五層石塔인데 扶餘邑內에 건립되어 있는 이 石塔은 현재의 위치가 原位置이다(圖 10 참조).

石塔의 구조는 일반적인 전축이나 石塔에서와 같이 地臺石을 구축하고 基壇部를 구성한 다음 그 위에 五層의 塔身部를 놓고 頂上에는 相輪部를 형성한 것이다.

여러개의 長大石으로 地臺石이 짜여지고 그 위에 基壇이 마련되었는데 單層基壇으로서 그 面石은 二段의 높직한 괴임대 위에 놓여있다. 面石의 높이는 낮고 各面に 양쪽 隅柱가 마련되었으며 八枚의 板石으로 이루어진 甲石은 두꺼운데 이러한 基壇部의 形式은 곧 木造建築物 基壇의 그것과 흡사한바가 있다. 甲石의 上面은 약간 경사졌고 塔身部를 받치는 괴임대는 마련되지 않아 평평한 甲石위에 그대로 塔身部를 구성하였다.

塔身部는 塊石을 重積한 것이 아니고 屋身과 屋蓋石이 여러개의 石材로 건조되어 도합 一〇八石이나 되는데 各層의 組立形式은 같다.

初層屋身은 上層들에 비하여 규격이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一二石으로 구성되었는데 네귀퉁이에 「엔타시스」가 현저한 隅柱石을 세우고 그 사이의 各面에는 二枚씩의 긴 板石을 끼웠다. 二層 이상의 屋身に 있어서는 二, 三層은 四枚石, 四層은 二石, 五層은 一石으로 조성되었는데 이것은 그 규격의 大·小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各層의 양쪽 隅柱에도

역시 「엔타시스」가 표현되었으나 初層에 비하여 二層 이상의 屋身の 높이가 급격히 체감되어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隅柱도 짧아져서 「엔타시스」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上層部에 올라갈수록 체감된 屋身石 전체에 비하여 隅柱의 폭이 넓게 유지되고 있음은 곧 눈에 띄인다.

各層 屋蓋石은 落水面部와 받침部가 별개의 石材로 구성되었으며 또 두 여러개의 板石으로 結構하였는바 各細部에서는 木造架構의 變形手法을 볼 수 있으니 특히 料棋을 변형시킨 받침이나 落水面 네귀퉁이에 서의 기와지붕의 두두룩한 우동마루형은 현저히 나타난 부분이라 하겠다.

落水面이 평박 하면서도 넓어서 늘신한데 네귀퉁이의 轉角이 전체적으로 살짝 반전되어 더욱 경쾌한 묘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屋蓋石 위에 別石을 놓아 높직한 괴임대를 만들어 그 윗층의 屋身을 받고 있는데 이렇듯 높은 괴임대는 二層 이상의 屋身이 지나치게 체감되어 자칫하면 重厚해 질것을 우려하여 취해진 구조이며 이로써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유지 하면서 오히려 경쾌감을 더 하고 있는바라 하겠다.

相輪部는 현재 五層 屋蓋石 위에 거의 圓錐形에 가까운 露盤石 하나가 있을 뿐 다른 部材는 없으며 檨柱孔은 露盤을 관통하여 그 밑의 屋蓋石 중심부까지 파여 있다.

이 石塔은 一見하여 木造塔婆의 구조를 담고 있음을 곧 알 수 있으니 좁고 얇은 單層基壇과 各層 隅柱에 보이는 「엔타시스」의 手法, 얇고 넓은 各層 屋蓋石의 형태, 屋蓋石 各轉角에 나타난 返轉, 屋蓋石 下面의 木造建物の 料棋을 변형시킨 받침手法, 특히 落水面 네귀퉁이의 두두룩한 우동마루형 등에서 이런것을 볼 수 있으며 한편 이러한 점이 이 石塔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라 하겠다.

현재 相輪部를 결실한 露盤石까지의 石材가 一四九개 인데 이것만으로도 이 石塔이 木造架構의 雛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細部手法에 있어서는 맹목적인 木造樣式의 모방에서 탈피하여 정돈된 형태에서 세

런되고 創意的인 造形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의 형태가 장중하고 明快하여 격조 높은 氣品을 풍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造形을 후세에도 많이 답습하여 이 地方에는 이 石塔의 모방품이 여러곳에 나타나고 있다¹⁴⁾.

이 石塔을 오래전부터 日人 학자들이 「平濟塔」이라 하여 新羅가 百濟를 滅할때 唐나라 장수 蘇定方이 그의 戰功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잘못 안 것은 이 石塔의 初層屋身에 「大唐平百濟國碑銘」이 刻字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塔은 결코 唐將 蘇定方의 戰勝紀念塔이 아니다.

당시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이렇듯 거대한 造塔佛事를 일으킬 수 없었음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관단일 것이며 다만 이미 건립되어 있는 이 塔身의 벽면을 이용하여 그네들의 紀念句를 刻字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되는 데 한편 이곳 扶餘博物館에 진열된 百濟時代의 石槽(扶餘石槽)寶物 第一九四號)에서도 이와 같은 銘文을 볼 수 있으며 이 紀功文의 刻字는 기존 石塔을 이용 하였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石塔은 百濟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진 것으로서 千數百年間 百濟의 寺院址에서 제자리를 지켜 오날에 이른 것이니 石塔이 서 있는 주변 일대가 百濟時代의 절터임은 최근까지에 행한 이곳 寺址發掘에서 伽藍配置의 전모가 해명 됨으로써 확인 되었다¹⁵⁾. 그리고 이 石塔 주변에서 「大平八年戊辰定林寺……」의 在銘瓦가出土되어(大平八年戊辰은 高麗時代 第八代 顯宗一九年、一〇二八年에 해당됨) 高麗初期에는 「定林寺」라 불렀던 것이 확실한바 이러한 점에서 이 石塔의 명칭은 「平濟塔」이 아니라 「定林寺址五層石塔」이라 일컫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하겠다.

이 塔은 이미 國內外에 널리 소개 되었고 더우기 학술면에서 石塔建築物로 많은 관심을 갖어 주목 되는바 또 하나의 百濟時代 石塔인 전라북도 益山의 彌勒寺址石塔(國寶 第一一號)과 함께 百濟石塔이 木造의 龕案에서 시작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유물임에서는 물론이요 各部의 樣式 手法이 特異하여 韓國 石塔樣式的 記號를

定立시키는 데에도 귀중한 遺物이라 하겠다.

이 石塔의 建立年代에 관해서는 과거 「平濟塔」이라 부르던 때에는 初層屋身의 刻字에 보듯 唐나라 顯慶五年、즉 百濟 義慈王 二〇年(六六〇年)으로 오해 되었으나 본래 이 塔은 百濟寺院에 건립되었던 百濟 石塔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建造時期는 그 이전 七世紀 초반으로 추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石塔은 百濟 멸망후 一三〇〇년이 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도괴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해체 보수한바도 없으므로 그 部材들의 내용에 있어서 아직까지 상세한 學術的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一九六三年 十二月 중순에 현지의 同好人들이 이 石塔을 세밀히 실측하여 各部를 상세히 관찰 하였고 實測值를 하나 기록 하는데서 지금까지 未知數이었던 것과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몇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意外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 方面 學術研究에 貴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¹⁶⁾.

첫째, 基壇部에 外廓石列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石塔의 基壇部 地臺石底邊에서 평균 六七cm 外側으로 四方에 길이 九〇cm ~ 一三〇cm의 판석을 한면에 四枚씩을 세워 박아서 그 머리만이 地臺石 底邊地平和 같이 一列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필시 石塔 자체의 重量으로 인한 중압을 地臺石 괴임들을 통하여 압석이 地臺石 이외의 지면으로 퍼져나가는 동시에 地臺石이 물러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비슷한 事例를 慶州 瞻星臺 四方地臺石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瞻星臺에서는 板石을 땅속에 埋沒시킨 것이 아니고 地面에 깔아놓은 것이니 이것은 定林寺址石塔 外廓石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兩遺構에서 地臺石 주변에 外廓石을 돌림으로써 보다 공고히 地臺石을 보존한다는 의도만은 같은 三國期 石造建築物에서의 공통된 점이라 하겠다. 둘째 屋蓋石 네 귀퉁이에 隅棟마루형이 마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즉 各層 屋蓋石의 落水面 네 귀퉁이 合角線上에는 木造建築의 기와집 우동마루형으로 폭 一二cm의 두드러진 모양을 내었다. 같은 百濟時代 石塔인

彌勒寺址石塔의 네 귀퉁이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兩石塔이 木造塔婆에서 石造化한 데서 木造지붕의 우동마루형이 石塔 네 귀퉁이에 그 흔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후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러는 네 귀퉁이를 線으로 分岐시키고 있으며 다만 石造浮屠의 屋蓋石에서는 간혹 두두룩한 우동마루형을 볼 수 있는 바라 하겠다.

셋째, 第四層 屋身에 舍利孔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舍利孔은 四層 屋身石 南側面에 두께 一三cm의 板石으로 가린 것이다. 당초 造塔 때에 계획적으로 四層 屋身의 높이 二二cm를 거의 깊이로 삼고 길이 六〇cm 폭 四三cm 長方形으로 舍利孔을 만들되 그 內部의 네 귀퉁이를 안쪽으로 등골게 도려낸 것이 특수하다고 하겠다. 一九六三年 十二月 實測時에는 遺物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四層 屋蓋石의 屋蓋받침을 「시멘트」로 보수한 흔적이 있음을 보아서 舍利裝置는 이미 일제침략시대에 도난당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넷째, 이 石塔은 統一新羅 이후의 石塔 造營方式과 달라서 木造建築物과 같이 隅柱石 面石 基壇石 등이 長大石과 板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實測조사에 의하면 基壇石材는 長石 四〇개, 第一層에서 第五層까지의 石材는 一〇八개, 露盤石 一개 등으로 도합 一四九개의 石材로 建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는 各層의 屋蓋石 네 귀퉁이에는 풍경을 달았던 작은 구멍이 각각 한 곳에 上·下 맞닿혀 있어 옛모습의 일단을 짐작하게 하는데 특히 第五層 屋蓋石 東西角에서는 아직도 당시의 풍경을 견어 놓았던 무쇠장식이 녹이 썩어 김북게 끼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 百濟時代의 塔婆를 論함에 있어 木塔의 基壇遺構에서는 平面의 方形인 것과 礎石의 配列 혹은 版築으로 基壇이 形成되었다는 것만을 알 수 밖에 없었으나 石塔에 있어서는 現存 石塔이 二基나 있으므로 이들의 各部考察로 建築的인 要素를 실제로 살필 수 있었다. 역시 石造物이기에 오래도록 遺存하며 古代建築의 實際는 石造建築에서 찾는 것이 淸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다.

四、新羅의 木塔과 石塔

新羅佛敎의 傳受에 대해서는 기록에 의하여 두 단계임을 알 수 있으나 첫째 국가의 公認를 받지 않은 단계로 일반민간에 포교된 일이요 다음으로는 국가적공인을 받아 크게 포교되는 단계이다.

즉 訥祇王 때 沙門(僧) 墨胡子가 高句麗에서 一善郡에 들어오매 郡人 毛禮(혹은 毛祿이라고도 함)가 집안에 堀을 파고 그를 安置하였다¹⁷⁾. 이후 一善郡(지금의 慶尙北道 善山郡)으로부터 포교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믿어지는데 현재 善山郡 桃開面 道開洞에는 「毛禮長者터(집터)」 「毛禮長者 冢」 阿道和尚의 전설과 관계된 「羊千谷 牛千谷」 그리고 太祖山(冷山)에는 阿道和尚이 창건하였다는 桃李寺가 있으며 그곳에는 朝鮮時代의 阿道和尚의 事蹟碑가 세워져 있고 祖師殿에는 阿道和尚의 肖像畫가 봉안되어 있다¹⁸⁾. 기록에 의하면 高句麗 伊弗蘭寺에 住錫한 阿道와 墨胡子를 同一人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보아 阿道即 墨胡子的 布敎를 訥祇王代(四一七~四五八 A.D)의 일이라 한다면 高句麗 佛敎受容인 小獸林王代보다 四〇餘年後이며 百濟佛敎의 開創보다 三〇餘年後에 불과한바 당시의 歷史地理的인 諸關係로 보아 訥祇王代의 佛敎傳來說은 수긍이 된다 하겠다.

다음 단계는 국가에서 佛敎를 公認하여 國中에 크게 布敎되는 일인데 기록에 의하면 法興王 一五年(五二八 A.D) 異次頓의 神異로써 비로소 開創되었다고 한다¹⁹⁾. 그런데 訥祇王代에 들어온 佛敎가 약 一世紀를 지난 뒤에야 公認되고 그것도 異次頓의 殉敎가 있는 후의 일이라 할진대 이렇듯 오랜동안 중단된 데에는 어떠한 理由가 있었을 것이니 혹시 炤知王 때 일어난 宮中의 不祥事에 基因되었을지도 모르겠다²⁰⁾. 그리하여 法興王代의 異次頓의 殉敎도 위 不祥事에서의 內殿 焚修僧과 같은 先行惡緣의 제거를 위하여 마땅히 겪어야 했던 희생이었을지도 모른다.

公認후 新羅에는 佛敎初傳과 같이 창건된 興輪寺와 永興寺를 필두로

이후 통일전까지 四〇餘의 佛寺가 창건되었으니 비록 麗·濟에 比하여 아주 뒤진 佛敎受容이었으나 일단 公認된 뒤에는 명실공히 國家宗敎로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중 三國史記나 遺事의 기록과 現地調査에서 현재 所在遺址를 알 수 있는 寺刹만 들어도 興輪寺 永興寺 皇龍寺 東竺寺 大乘寺 三郎寺 金谷寺 天柱寺 法光寺 芬皇寺 靈廟寺 生義寺 金光寺 通度寺 水多寺 大和寺 등 실로 많은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寺刹중에서 木塔이던 石塔이던 塔婆의 遺構를 오늘날에 까지 전하고 있는 곳은 皇龍寺木塔址와 芬皇寺石塔뿐이며 다른 寺院에서는 塔婆가 存在하였음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을 따름이다. 즉 興輪寺에 塔이 있었고 특히 天柱寺와 靈廟寺에는 木塔이 있었다는 데 아직 이들 寺址에서 塔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新羅時代의 塔婆를 論하려면 現단계에서는 木塔으로 皇龍寺九層木塔을 살피고 石塔으로는 芬皇寺石塔을 거론하게 되는 것이다.

皇龍寺 창건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 十四年(五五二 A·D)條에 「王命所司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曰皇龍」이라고 보이고 同王二十七年(五六六 A·D)條에 「皇龍寺畢功」이라 하였으며 三十五年(五七四 A·D)條에는 「鑄成皇龍寺丈六像 銅重三萬五千七斤 鍍金重一萬一百九十八分」이라 보이므로 眞興王代에는 어느 정도의 寺觀이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皇龍寺의 九層木塔에 관해서는 三國史記 新羅本紀 善德女王十四年(六四五 A·D)條에 「三月 創造皇龍寺塔 從慈藏之請也」라 하였으므로 善德女王 때 비로소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皇龍寺의 寺觀이나 莊嚴 등에 관한 記事는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 第三의 「迦葉佛宴坐石」과 「阿道基羅」、塔像 第四의 「皇龍寺丈六」 「皇龍寺九層塔」 「皇龍寺鐘」條 등에 비교적 상세히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三國史記와 遺事의 記事에 다소 年代差가 있으나 여기서는 論題와 無關하므로 論外로 하겠거니와 善德女王代에 皇龍寺九層木塔이 기록된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당시 新羅에서는 三寶라 하여 皇龍寺金銅



圖 11. 皇龍寺 丈六三尊佛이 奉安되었던 中央金堂址(九層木塔址北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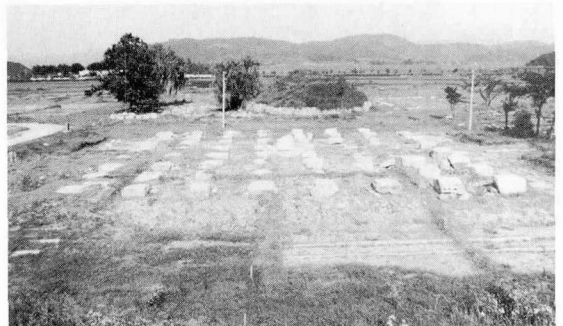


圖 12. 皇龍寺 九層木塔址(西쪽에서)

丈六三尊佛像과 皇龍寺九層木塔 그리고 眞平王의 天賜玉帶를 나라를 지키는 신기스러운 國寶로 간직하였는데 眞平王의 玉帶는 高麗太祖二〇年(九三七 A·D)에 新羅의 敬順王이 王建太祖에게 선물로 바쳤으며 皇龍寺의 丈六佛과 九層木塔은 高麗 高宗二五年(一一三八 A·D) 蒙古의 三次兵亂 때 모두 타버리고 현재 寺址에 그 옛터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圖 11, 12 참조).

皇龍寺九層木塔에 관해서는 三國遺事 塔像傳의 「皇龍寺九層塔」條에 자세한 記事가 보이므로 文獻의 으로나 遺蹟으로서나 이 木塔은 가장 뚜렷한 存在라 하겠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慈藏法師의 請에 의하여 木塔을 건조하게 되었는데 이때 百濟工匠 阿非知가 초청되고 伊千龍春이 小匠二百名을 거느리고 일을 주관하여 慈藏이 五臺에서 받은 舍利百粒을 기둥 속과 通度寺戒壇과 大和寺塔에 分安하였다는 것이다. 木塔의 높이는 鐵盤이상 四十二尺, 이하는 百八十三尺이라 하여 전체

二百二十五尺을 말하였고 「隣國降伏 九韓來貢」케 하기 위하여 第一層은 日本 第二層은 中華 第三層은 吳越의 순서로 第九層 穢貊에 이르기까지 주위 여러 의적의 침해를 누르기 위한 護國思想에서 일으킨 國家的인 大役事였던 것인데 二百二十五尺(약 70m)의 塔高를 생각해 볼 때 그 偉容은 실로 놀라웠을 것이며 그러기에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도 蒙古族이 護國의 寶物을 없애기 위하여 멀리 慶州에까지 질주하여 이를 全燒시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

蒙古兵亂 때 燒失된 皇龍寺九層木塔은 그 후 다시 건립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塔址는 비교적 완전하게 남아있다. (圖 12 참조) 즉 基壇上面에 礎石이 노출되어 있고 基壇表面은 주위 地表보다 약 1m가 높은 方形臺地를 이루고 있다. 基壇의 규모는 一邊長 二九·一m의 正方形으로 基壇石은 地臺石 일부를 남기고 그 밖의 石材들은 모두 欠失되었다. 基壇上面 中央에는 처음부터 노출되었던 巨大한 心礎石이 있고 그 주위에 각각 八列의 方形 礎石群이 대부분 原位置에 놓인 채 노출되어 있어 본래 初層塔身이 七間四面의 규모임을 알게 하며 이에 따라 初層塔身의 幅은 기둥의 礎石거리로 보아 二二·二m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慶州開發計劃의 일환으로 이곳 皇龍寺址 일대를 발굴조사하여 遺蹟遺構를 정리 보수, 遺蹟公園을 造成 保存할 방침을 세워 지난 一九七六年度부터 寺域에 대한 發掘調査를 착수,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金堂을 비롯한 諸建物址의 發掘은 물론 九層木塔址에 대한 發掘調査도 실시하여 현재 그 진모를 잘 살필 수 있게 되었는바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즉 基壇은 單層基壇으로 계단은 南面に 세 군데, 東西 및 北面에는 中央에 각각 한 군데씩 설치되어 있었으나 계단 石材 일부가 남은 것은 南面 뿐이고 그 밖의 것은 그 흔적만 확인할 수 있다. 基壇外部주위에는 계단 끝을 둘러싸는 위치에 地臺石 같은 細長한 石材로 基壇을 둘러 쌓아 基壇 地臺石과 이 石材 사이를 敷敷으로 깔고 있다. 이 地臺石과도 같

은 區劃에서 폭 一·二m밖에 다시 細長한 石材를 둘러는바 이것은 敷塼面보다 약 七cm 낮게 설치되어 있다. 이 두 줄의 石材區劃은 感恩寺西塔에서 확인된 基壇周邊의 敷石이나 佛國寺釋迦塔 基壇주위를 둘러싼 金剛蓮華座 등의 塔區 意匠의 始源의 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木塔址는 原形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으며 中心의 心礎도 또한 그러하리라 짐작되었는데 新羅時代의 舍利堂치가 一九六〇年代에 盜取당하였다가 곧 수습되어 추측대로 舍利莊嚴의 대략이 짐작되었다. 수습調査된 遺物들은 비록 창건 당시의 것은 아니고 新羅下代에 이르러 重創 때 奉安한 것이나 이곳의 舍利具는 新羅舍利堂置의 귀중한 一例로 주목되며 刹柱本記는 皇龍寺事蹟과 九層木塔의 歷史研究에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羅代의 金石文으로서도 珍貴하다 하겠으며 특히 九層木塔전립에서 「皇龍寺建九層窠塔波」라 한 것은 또한 주목되는 바다²¹⁾.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皇龍寺址發掘團에서는 心礎石의 주변과 그下部를 發掘調査하여 많은 遺物을 수습하고 舍利莊嚴의 새로운 一例임을 밝힐 수 있어 九層木塔에 대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²²⁾. 皇龍寺九層木塔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곳 일대의 發掘調査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또 다른 遺構와 자료가 색출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인바 현재까지의 조사내용만으로도 三國期木塔에서는 가장 풍부하고도 정확한 遺構를 알 수 있어 실로 한국 木塔研究에 있어서 그 귀중한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다음 石塔의 考察로 芬皇寺石塔을 살펴야 할 것인바 우선 芬皇寺의 事蹟을 보면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五 善德王 三年(六三四 A·D)條에 「芬皇寺成」이란 記事가 있으므로 이때에 창건 되었음을 알겠다. 이 밖에 특별한 기록은 없고 三國遺事 卷 第三 塔像 第四에 「芬皇寺藥師」條에 있으나 여기에는 「景德大王 以天寶十三甲午 鑄皇龍寺鐘……又明年乙未 鑄芬皇藥師銅像 重三十萬六千七百斤 匠人本彼部強古乃未」라 하여 藥師像의 관계기록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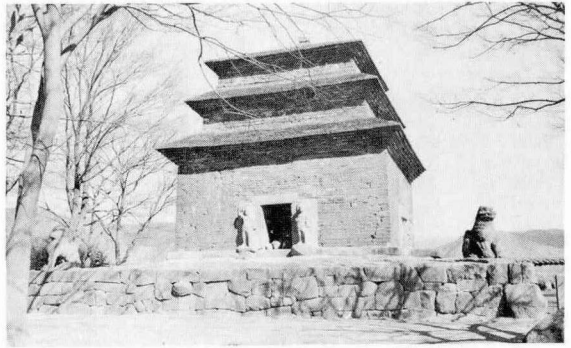


圖 13. 芬皇寺 石塔 (西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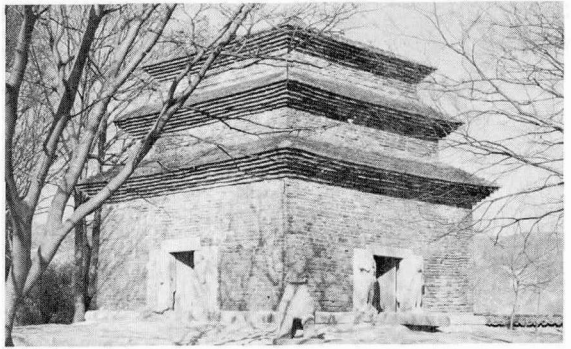


圖 14. 芬皇寺 石塔 (西南쪽에서)

그러나 芬皇寺石塔에 관해서는 三國史記나 遺事 등에 記事가 없고 後代의 기록이지만 다만 東京雜記 卷之二 古蹟條에 「芬皇寺九層塔 新羅三寶之一也 壬辰之亂 賊毀其半 後有愚僧 欲改築之 又毀其半 得一珠 形如 碁子 光似水精 舉而燭之 則洞見其外 太陽照處 以綿近之 則火發燃綿 今 藏在栢栗寺」라는 記事가 보이는데 「新羅三寶之一」이라고 한 것은 皇龍寺 九層木塔과 혼동한 誤記일 것이다. 그러나 「芬皇寺九層塔」이라고 한 層數의 문제와 「後有愚僧 欲改築之 又毀其半」 「得一珠」 등의 記事는 일단은 주의를 끄는바라 하겠으며 이러한 點에서 尙古에서 開塔한적이 있었음을 文獻上으로 짐작케 한다.

芬皇寺石塔은 현재 芬皇寺 境內의 原位置에 建립되어 있어서 各細部를 고찰할 수 있다(圖 13, 14 참조). 이 石塔은 安山岩의 작은 石材를 治石模博하여 築造하였으므로 博造塔婆의 樣式을 모방한 模博石塔이라 하겠다.

基壇은 花崗岩 自然石으로 築造한 單層으로 되어 있어 博塔 基壇의 通式을 보이는바 一邊長 十三 m 높이 一·一 m의 方壇이 塔身部를 받도록 구성되어 있다.

基壇 中央에는 治石한 花崗岩板石을 結構하여 괴임 一段을 마련하고 폭 六·五 m의 初層屋身을 받게 하였다.

塔身部는 길이 三〇(四五) cm 두께 四·五(九) cm 크기로 灰黑色 安山岩을 切斷하여 各층 屋身과 屋蓋部를 築造하되 屋蓋받침은 물론 落水面의 層段도 外形上으로 博塔과 같은 형태를 취하였다. 初層屋身은 특히 높는데 四面에는 龕室을 開設하여 花崗岩을 治石한 長大石으로 上楣地枋門柱를 架構하고 石扉를 양쪽에 달아 돌문짝이 돌이다. 龕室 入口左右에는 각각 仁王像을 彫刻 嵌入하였는데(圖 15 참조) 이들의 彫刻手法에서 三國期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다. 屋蓋받침의 層段數는 初層과 二層이 六段이고 三層이 五段이며 屋蓋石 落水面의 層段은 初層과 二層이 각각 十段이고 三層은 方錐形으로 되어 頂上에 花崗岩으로 造成한 仰花를 얹고 있다.

이 石塔은 一九一五年 日本人들의 손에 의하여 修理되어 현재의 外形과 같이 三層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것이 어느정도 原形을 보존하고 있는지의 문이다. 또한 基壇上 네 귀퉁이에는 石獅子 一座씩을 배치하였는바 과연 이들이 초창 당시부터 자리하고 있는 것인지는 再考해 보아야 할 일이다.

기록이 없으므로 尙古 당시 芬皇寺의 규모가 어떠한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西南方에는 幢竿支柱 一基가 遺存하며 東南方에는 이와 비슷한 模博石塔이 있었으리라고 추측되는 遺址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日帝侵略期이 石塔을 수리할 때 第二層과 第三層 사이에서 石函속에 부은 안한 舍利莊嚴이 발견조사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각종 玉類 가위 金銀의 바늘 등 재봉 도구와 金銀銅의 容器 등 古新羅時代의 遺物과 함께 崇寧通寶 常平五銖 등 高麗 以來의 古錢이 발견 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尙古 당시의 舍利藏置에 追加하여 高麗時代에 이르러 開塔 補修하고 古錢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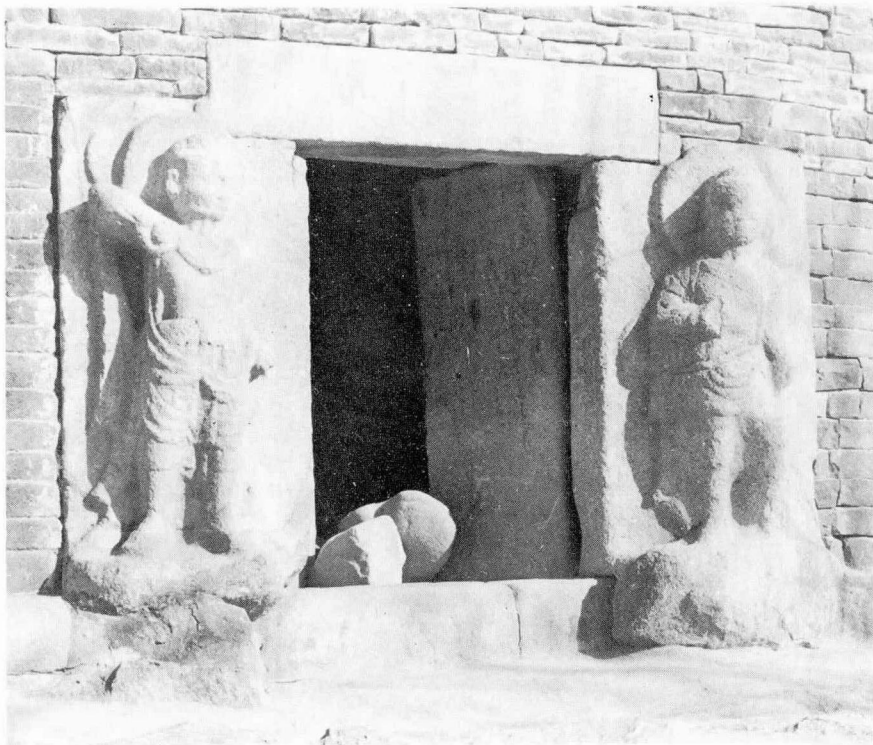


圖 15. 芬皇寺石塔初層에 開設된 龕室

後納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石塔의 建造年代는 文獻에 芬皇寺의 창건이 善德女王 三年(六三四 A·D)으로 明記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한편 石塔 자체의 建塔樣式이나 仁王像의 彫刻手法 등으로 보아도 창건 당시의 建造로 추정하는 것이 수긍된다고 하겠다.

原形에 대하여는 九層 七層 五層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과연 어느 層數가 맞을 것인지 알 수 없다. 日帝侵略期에 關野貞氏의 「朝鮮建築調査報告」와 藤島亥治郎氏의 「建築雜誌 五七九號」에서 七層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최근 國內學者들 사이에서는 전체적인 체감율과 比例로 보아 五層이 아니었던가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아들은 앞으로 새로운 판제자료가 색출되면 보다 정확한 原形이 추정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芬皇寺石塔은 그 構成이 塼塔의 形式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 材料는 石材인 점이 주목된다.

본래 塼材로 塔婆를 建造하였음은 印度였으나 이것이 중국에 미쳤을 때 중국 特有의 高樓式 木造塔婆는 非永久性이었으므로 보다 耐久性이 강한 塼塔經營을 쉽게 받아드려 오히려 중국에서 塼塔의 建造가 성행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에서의 이러한 塔婆의 變相은 곧 한국에 미치게 되었으나 한국은 塼의 나라가 아니었다. 塼은 가장 非生産的인 資料이므로 塼塔이 한국에서는 크게 유행하지 못하였다. 즉 塼塔은 建塔에 앞서 人工을 加하여 塼材를 생산해야 되므로 이러한 努力의 불편으로 塼塔의 建立이 성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에서의 塼塔의 形式을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 바로 芬皇寺石塔인데 이 塔은 塼 그 자체로써 築造된 것이 아니고 安山岩을 模塼하여 塼材대신 사용한 것이니 한국의 初期塼塔이 石塔에서 出發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즉 塼材가 非生産的이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芬皇寺石塔이 비록 塼材築造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 塼塔의 先驅라 하겠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塼材가 비록 非生産的이어서 模塼材로 축조했다 하여도 塔材 자체가 石材라는 점에서 石造塔婆로 불리우는 사실이다.

五、結 論

이상 高句麗 百濟 新羅에서의 塔婆建立의 상황을 살펴 보았다. 우선

文獻上으로 考察하고 現存遺構를 중심하여 建塔의 實際를 알아 보았는데 高句麗는 平壤淸岩里廢寺址와 大同上五里廢寺址에서 각기 八角殿址의 遺構로부터 木塔址를 추정하였으며 百濟는 扶餘의 軍守里廢寺址와 金剛寺址에서 平面方形의 木塔址를 추정하고 現存 益山彌勒寺址石塔과 扶餘定林寺址五層石塔에서 石塔의 各部構造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新羅에서는 木塔으로 皇龍寺九層木塔址를 고찰하고 石塔으로는 芬皇寺石塔을 검토하였다.

高句麗에서 石塔의 遺構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石塔 建塔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현실적인 기록이지만 몇가지 기록을 통하여 方形이던 多角形이던 重層으로 構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특히 平面八角塔의 意匠은 이후 高麗時代에 이르러 建塔의 한 특색이 地方에 따라 자기 특색있는 樣式을 보이게 되었을 때 高句麗 故土인 平安道 inland에서 는 先代의 祖型을 따라 平面八角의 石塔이 많이 建造되어 이 地方 나름대로의 특징을 나타냈던 것이다.

百濟에서는 木塔의 基壇遺構가 있어 平面方形의 高樓形式으로 木塔이 建立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大陸에서 建塔되던 樣式의 도입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百濟에는 다른 나라에서 보다도 특정한 것으로 石造塔婆의 實例를 二基나 볼 수 있었으니 益山의 彌勒寺址石塔과 扶餘의 定林寺址五層石塔이다. 이렇듯 石塔의 발생은 우선 木塔의 非永久性과 또 塼材의 非生産의 인點을 고려하여 가장 永久의 이고 가장 능률적인 建塔활동은 곧 石材를 사용하는 일로 着眼한 데서 이루어진 결과 가 아닌가 한다. 실제 한국은 어느 나라 보다도 良質의 花崗岩을 어느 곳에서든지 多量으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다른 材料의 塔婆들 보다도 石造塔婆가 훨씬 많이 건립되어 한국塔婆의 一大主流를 이루게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始發을 곧 二基의 百濟石塔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彌勒寺址石塔은 方形 多層樓의 木塔樣式을 石材로써 具現한 最初로 各部構造가 木造塔婆 架構를 곧 石材로 옮기고 있음을 細部 검토에서 잘 알 수 있으니 여기서 한국 石塔의 始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定林寺址五層石塔은 바로 이 彌勒寺址石塔으로부터 樣式과 構造上 상당한 발전상을 보이고 있는바 여기서 하나의 百濟樣式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七世紀 初부터 中期에까지 이루어진 百濟石塔의 樣式은 이후 高麗時代에 이르러 地方的 특색이 나타나게 되자 百濟故土인 忠淸南道와 全羅北道 地方에서 百濟石塔樣式을 再現한 石塔들이 本받았던 것이다.

新羅에서는 皇龍寺 九層木塔址와 芬皇寺石塔을 살펴 보았는데 木塔建塔의 전통은 이후 統一新羅時代에 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었으나 역시 非永久의 이었으므로 石塔에 압도 당하고 만다. 한편 芬皇寺石塔은 石材이나 塼築의 樣式을 보이고 있으므로 곧 新羅의 石塔은 塼塔을 모방한 데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받침形式 등이 塼塔의 樣式으로 부터 발생했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에 하나의 樣式發生史的인 계열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塔들에서 살펴 보았듯이 高句麗에도 石塔이 있었다 하고 다른 두나라는 실제 그 遺例가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 百濟의 石塔은 花崗岩을 전용하여 木塔系樣式을 따른 반면 新羅는 花崗岩을 혼용 하였으며 安山岩을 主材로 삼아 塼塔系樣式을 모범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또 兩國의 初期石塔은 그 기본 평면을 正方形으로 하여 多層을 이루었다는 사실과 石材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니 이렇듯 두나라의 初期石塔들은 서로 그 樣式을 달리해서 출발 했지만 얼마 후 하나의 樣式으로 통일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비로소 한국 石塔의 典型이 생기게 되는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 바로 三國統一의 偉業이었던 것이다.

〈註〉

- ① 중국에서의 建塔起源에 관해서는 高僧傳에 의한 二四七 A·D 說과 後漢書 陶謙傳에 의한 後漢 靈帝 中平六年(一八九 A·D)으로부터 獻帝 初平四年(一九三 A·D)間에 이미 建塔사실이 있다는 두가지 說이 있다.

- ② 三國遺事 卷三 興法 第三 「順道肇麗」 및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六 小獸林

王條 참조.

③ 上掲書 塔像 第四「遼東城育王塔」[高麗靈塔寺] 참조.

④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六 廣開土王 二年條에 「秋八月...創九寺於平壤」이라 보인다.

⑤ 朝鮮古蹟研究會(代表 梅原末治)·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1940:6)

⑥ 齋藤忠·朝鮮佛數美術考 P P. 24~25, P 87 참조(1947, 日本東京寶雲舍刊). 특히 考古學雜誌 第三十卷 第一號(1940年 1月號)의 彙報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齋藤忠氏의 略報가 있다.

上五里寺址는 1938年에 행한 淸岩里廢寺址의 東南 약 三十町, 大同江畔의 北方 四·五町의 거리에 있다. 조사한 결과 地表 약 一尺數寸의 깊이에 一邊 약 十尺되는 八角基壇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七·八寸 크기의 河邊石을 外緣을 맞추어서 大개 四列로 敷設한 것이다. 이 內部는 外緣부터 약 十二尺 떨어져 좀 높게 切石이 點點 並列하고 대략 南北 七十二尺 東西 八十尺의 正方形이 推定 된다. 또 이 切石列과 外緣 사이에는 東方과 北方에 河邊石의 敷設列이 遺存하고 있다. 其他에 中央部의 深處에도 他處에도 礎石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八角基壇의 東西에는 길이 약 五尺三寸 폭 약 二尺二寸되는 平石이 並列되어 있어 약 二十尺 떨어져 東西에 左右 對稱의 위치에 있는 東西四十一尺五寸 南北八十四尺의 基壇을 가진 建築址에 通하고 있다. 이 兩 建築址는 특히 四方의 것이 基壇의 遺構로서 切石도 點點 並列하여 잘 남아 있고 그 外緣에는 또 七尺 內外씩 間격을 두고 花崗岩의 方柱臺가 둘러 있다. 이것은 勾欄의 東臺로도 생각되는 것인데 柄이 나와 있는 것과 柄穴 있는 것이 대략 交互로 並列되어 땅속에 깊이 삽입되고 있었다. 조사는 以上으로 그치고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八角基壇 北側과 南側 및 東西基壇의 四方外方 등의 地域의 조사는 다음해에 밀것으로 되었는데 八角基壇은 前에 淸岩里廢寺址에도 나타나고 또 그 東西基壇도 대략 같은 配置로 보이는 것도 흥미가 깊고 나아가 그 전모를 出現시킴으로써 高句麗 寺院의 研究上 큰 資料를 加할 것으로 생각된다. 出土遺物로 瓦는 그 종류가 꽤 많고 形式이 다른 것이 二十종류나 있으며 모두가 高句麗時代의 特色을 구비하고 있다. 平瓦에는 東字의 刻印이 적혀 있는 예가 적지 않다. 기타 角形 金銅金具나 金銅心 葉形垂飾 등의 金具가 出土되었다.

⑦ 拙稿·「高麗時代石塔의 特性에 관한 研究」檀國大學校 論文集 第11輯 所收 (檀國大學校 出版部刊 1977)

⑧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二 枕流王條 참조.

⑨ 朝鮮古蹟研究會代表 梅原末治·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1937:7)

⑩ 國立博物館(尹武炳)·「金剛寺——扶餘郡 恩山面 琴心里 百濟寺址 發掘報告」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七冊(1969:12) 참조.

⑪ 藤島玄治郎·「朝鮮建築史論」其三(1930:5) 참조.

⑫ 「馬韓·百濟文化」創刊號와 第二輯 『益山彌勒寺址 東塔址一、二次發掘調査報告』(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 研究所刊 1975~1977) 참조.

⑬ 一九七八年度에 全羅北道 當塗에서 彌勒寺址石塔의 復原考察委員會를 열어 復原圖面을 여러가지로 작도하여 검토한 결과 대체로 七層이었던 것이 아닌

가 하는 見解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試案으로서 앞으로 보다 확증적인 자료가 수습될 때에는 수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⑭ 拙稿·「高麗時代石塔의 特性에 관한 研究」本稿註 7 참조.

⑮ 忠南大學校博物館에서 실시한 一九七九~一九八〇年度 二次에 걸친 發掘調査時 現場見學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⑯ 洪思俊·「扶餘定林寺址五層石塔——實測에서 나타난 事實——」考古美術 第五卷 第六·七號(韓國美術史學會刊 1964:7)

⑰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 第三「阿道基羅」참조.

⑱ 拙著·「善山地區古蹟調査報告書」檀國大學校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二冊(檀國大學校 出版部刊 1968:11) 참조.

⑲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十五年條,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 第三「宗興法 默鬻滅身」참조.

⑳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射琴匣」참조.

㉑ 黃壽永·「新羅 皇龍寺九層木塔 刹柱本記와 그 舍利具」東洋學 第三輯 所收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刊 1973).

㉒ 金正基·「舍利莊嚴의 新例」考古美術 138:139, 蕉雨 黃壽永博士華甲 紀念論文集 所收(韓國美術史學會刊 1978:9).